

지역 소식통

고창군 포크레인 기사
쓰러진 70대 남성 구조

고창군 무장면 민화리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남성이 한 시민의 신속한 심폐소생술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되찾았다.

지난 4월 11일, 무장면 민화리에서 75세 남성 A 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 119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포크레인 기사 전창현 씨(53·무장면 거주)는 의식을 잃은 A 씨를 발견하고, 간호대에 재학 중인 자녀에게 배운 심폐소생술을 지체 없이 시행했다. 전씨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A 씨는 구급대 도착 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고창소방서 무장119안전센터 구급대 및 펌블런스 대원들은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이어갔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 씨는 집중 치료 끝에 건강을 회복하고 최근 퇴원했다.

퇴원을 앞둔 A 씨의 가족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남편을 살려준 포크레인 기사님과 헌신적으로 응급처치해주신 소방대원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제1기 건축
안전자문단 위촉식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3일 군청에서 제1기 건축안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지난 4월부터 전국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됐으며 건축(18명), 토목(6명), 전기(1명), 소방(1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군은 이날 위촉식을 개최하고 김남중(주)다인종합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를 단장으로 선출,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단은 건축안전사고를 초기에 예측해 초기 긴급 점검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자문 활동에도 힘을 쏟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자문단이 전문적인 안전점검 및 건축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군 건축 행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노후 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본격화

정읍시, 13억4100만원 투입 샘골 · 산내보건지소 공사... 2026년 개소 목표

정읍시가 낡은 공공건축물에 친환경 숨결을 불어넣어 시민들에게 더욱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13억4,100만원(국비 9억 3,900만원, 도비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상동 샘골보건지소와 산내보건지소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이다.

이번 사업 대상자인 샘골보건지소와 산내보건지소는 각각 준공 후 16년, 13년이 경과 된 노후 건축물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호 교체, 지붕·외벽 단열 보강 등 건축공사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폐열환수 환기장치 설치 등 설비공사를 병행해 두 곳 모두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건축물로 대폭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특히 샘골보건지소의 경우,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률이 이전 대비 약 55%까지 개선될 것으로 조사돼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내보건지소는 고효율 창호·외벽 단열 공사를 통해 겨울철

한의 기후에도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동시에 샘골보건지소는 이번 그린리모델링을 발판 삼아,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개소를 목표로 하고 이번 리모델링이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산내보건지소는 5월, 샘골보건지소는 6월에 각각 착공 예정이며 두 공사 모두 신속하게 추진돼 각각 오는 8월과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총력전을 펼쳤다.

지역경제 활성화 · 인구소멸 극복

이학수 정읍시장, 중앙부처 방문 등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정읍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총력전을 펼쳤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13일, 사업소관 부서장들과 함께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는 지난 4월 3일 열렸던 국가예산 중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부처예산안 편성 기한인 5월까지 전 부서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적극적인 후속 조치다.

이날 이학수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담당 부서장 및 실무진들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 주요 현안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의 성공

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정읍시가 첨단 기술 거점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기 위한 △팻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 △국가 R·ADME 구축·활용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농업인의 작업여건 개선과 농기계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농기계 통합센터 신축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당면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깊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한 신규사업을 지속 추진으로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시티투어버스 봄 시즌 운영 종료

관광객 맞춤형 코스로 큰 호응

고창군의 각종 봄 축제와 주요관광지를 연결해 왔던 '고창 시티투어버스'가 봄 시즌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 시티투어버스는 지난 11일을 마지막으로 올 봄 총 11차례 운영되며 170여명의 방문객을 실어 날랐다.

버스는 고창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에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해 관광지 해설은 물론 지역 특산물과 맛집 정보까지 제공하며 여행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 벚꽃, 청보리 등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된 코스를 선보이며 다양한 연령층의 관광 수요를 만족시켰다. 3~4



월 초에는 벚꽃축제와 온곡팍사트루지를 중심으로, 4월과 5월에는 청보리밭 축제장과 무장읍성, 선운산 등을 연계한 코스를 운영해 높은 예약률을 기록했다.

관광객 A씨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 덕분에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역사와 문화까지 알게 되어 뜻깊었다”며 “차량을 이용해 편리하게 고창의 주요 명소를 둘러볼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성실 납세 문화 조성... 생계형 체납자 회생 지원

정읍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를 '생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우선 체납액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대상자에게 일괄 발송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

해 체납자들이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는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

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 기동반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순찰하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압박 대신 회생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우리 동네 건강 지표 만든다

정읍시, 7월 말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정읍시보건소가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의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통계조사를 시작한다.

시 보건소는 202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10월부터 7월 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이 조사는 시민들의 건강 수준, 건강 생활 습관, 의료 이용 실태 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수집·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근거 자료를 제

공한다. 즉,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중독 경험 △활동 제한·삶의 질 등 총 19개 영역에 걸쳐 160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수집된 조사 결과는 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경 질병관리청에서 공식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조사는 사전에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조사원이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